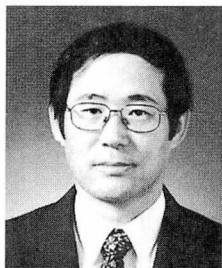


국내 리스크관리 현황과 화협의 역할



김 성 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 머리말

리스크관리는 경영학의 특수분야의 하나이다. 리스크관리의 목적은 사고로 인한 손실이 조직이나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리스크관리는 이 목적을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

해 조직의 자원과 활동을 계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현재 지구촌은 도시화, 산업화의 가속화와 함께 시설의 대형화, 밀집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 화재, 자연재해가 대형화, 재난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의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에 따른 리스크관리의 부족으로 많은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성수대교의 붕괴, 삼풍백화점의 붕괴, 대구 지하철사고, 인천호프집화재, 씨랜드화재, 홍수피해 등 사고의 성격이 대형화·재난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 동안 정부, 보험회사, 화재보험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노력으로 사회 전반의 방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방재에 대하여 매우

모범적인 기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재난들과 여전히 높은 산업재해율, 자동차 사고율, 기업보험 손해율 등을 볼 때 아직 우리는 리스크관리에 대해 상당히 후진적이라고 보여진다. 리스크관리의 선진화는 21세기 우리나라의 주요 과제이며 올해 창립 27주년을 맞는 화보협회의 역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리스크관리의 선진화

일반적으로 리스크관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리스크관리 노력의 상대적 성공과 실패를 단기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생산 및 영업 활동은 생산량, 영업이익 등으로 성과 측정이 가능하나 사고손실 리스크관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수단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손실예외의 노출 제거, 손실통제 등의 노력으로 인한 단기적인 비용 증가, 시장조건의 변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 공제금인상으로 인한 단기적 보험료절감의 타당성 등 리스크관리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 내의 경제발전 추구로 리스크관리에 대한 투자를 무시하였고 이러한 성향은 사회전반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무지와 함께 최근의 다발적인 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리스크관리의 활성화에는 이해관계자들, 즉 최고경영자와 주주 및 채권자 등의 리스크관리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Neil Doherty 교수는 기업에 있어 재무관리이론이 리스크관리에 연관된 의사결정에 최상의 준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재무이론은 주식이 공개되었거나 넓게 분산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에 보다 잘 적용된다.

기업경영이 추구하는 기업가치의 극대화는 시장에서의 주식의 가치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증권시장이 완전하다면 주식의 총가치는 해당 기업의 기대이익흐름을 리스크를 반영한 이자율로 할인한 값이다. 즉, 기업가치의 증대는 기대이익의 증가나 리스크의 감소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기업경영활동은 이러한 주식가치의 극대화가 목적이 되어야 하며 리스크관리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은 개인이나 조직의 소유이고, 이들은 기업의 이익이나 재산에 대해 청구권을 가진다. 이들은 은행, 종업원, 경영자, 주주, 채권자, 고객들을 포함한다. 시장에서 청구권자들은 그들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경영진의 행동에 대하여 보상받기 위해 증권요구수익률을 조정하고자 하며 따라서 경영진의 행동을 감시한다. 이러한 감시활동비용 또한 요구수익률에 포함된다. 잘 설계된 리스크관리 프로그램은 청구권자들에게 이익증대의 신호를 줌으로써 요구수익률을 감소시키고 이는 기업의 총자본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기업가치최대화의 원칙은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다.

비용만을 통제하는 리스크관리는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없다. 최고경영진은 리스크관리자를 그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능력, 불확실한 손실과 관리비용의 감소와 함께 리스크 보유로 인한 이익증대 기회의 창조 능력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으로 조직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사용될 수 있다. 현금흐름은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모든 의사결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에서는 전략적 리스크관리(Strategic Risk Management) 또는 총체적 리스크관리(Integrated Risk Management)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리스크관리는 기업의 다양한 기능과 활동들 간의 리스크관계를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과 계획수립의 핵심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최고경영진이 기업의 리스크관리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업 가치와 직결되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 조직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기능들은 조직의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된 노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리스크관리자는 리스크관리 부서 내에서는 라인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다른 부서들과는 스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리스크관리자는 스텝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의 정도가 최고경영자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지식과 인식 그리고 인정으로부터 나온다. 리스크관리자와 리스크에 노출되는 다른 부서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 리스크관리자는 타 부서로부터 사고손실예의 노출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스텝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리스크관리는 리스크관리 부서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며 일선 부서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리스크에 노출된(되고 있는) 부서가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리스크관리에 협조적이어야만 총체적 리스크관리의 성공적인 시현이 가능하다.

한편, 복잡다기한 세계에서의 리스크관리는 보다 훌륭한 관리도구를 필요로 한다. 리스크관리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평가하고, 리스크관리 대안을 창출하고, 최적의 대안(들)을 선택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

정에서 많은 새로운 기법들이 연구·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리스크인지와 평가 과정에서의 risk map이나 simulation 기법, 리스크 통제의 다양한 technology, 리스크 financing에서의 새로운 금융기법 등이 등장하고 있다. 성공적인 리스크관리는 이러한 새로운 도구들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리스크관리에 전문화된 다양한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많은 리스크관리 전문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손해보험사들, 브로커회사들, 독립대리점들과 회원들에게 기업리스크의 관리에 관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RIMS(Risk and Insurance Management Society)와 산업안전과 사고예방의 기술적인 분야에 전문화한 ASSE(American Society of Safety Engineers), 화재 및 전기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주로 하는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와 같은 비영리적인 협회,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기간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한 연방정부의 한 독립기관인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와 그 산하 기관으로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경제적 손실을 감소하는 데 목적을 둔 USFA(U.S. Fire Administration), Business Insurance와 같은 전문잡지, 영리목적의 리스크관리 전문업체 등 수많은 전문가집단들이 리스크관리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리스크관리 전문 기관들 존재는 국민, 정부, 기업들의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 한편, 이들 기관들 특히 비영리기관들의 장기간의 노력들이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전체의 올바른 인식과 수요 창조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성수대교사고와 삼풍백화점사고 직후 마련된 재난관리법의 시행, 국무조정실에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앙부처 산

하의 산업안전관리공단, 각급 행정기관 등도 재해의 예방과 대응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리스크관리팀, 손해보험협회와 화재보험협회,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등이 리스크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리활동에 힘써 왔다.

그러나 아직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과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어 충분한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과 수준은 아직 선진 외국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자동차 사고율, 기업보험의 높은 손해율, 상상하기 힘든 무지에서 비롯된 재난 사고의 빈발, 리스크관련 세미나들에 관한 낮은 관심 등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소수의 기업들이 사고예방에 높은 인식을 가지고 방재활동을 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이러한 활동이 전사적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로 발전된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리스크관리의 선진화와 리스크 관련 기관들의 보다 고차원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3. 맺는 말 (화협의 역할)

올해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보험법 11조에 의거 1973년 설립된 이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예방의 주역이 되어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리스크관리 전문기관인 협회는 150여 명의 전문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산하 방재시험연구원과 함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화재보험의 소화설비에 따른 효율할인등급의 사정,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 연구 및 계몽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진단, 화재와 연관된 국책연구과제의 수행, 방재분야의 신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통한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하이테크 연구용역의 수행, 한국화재안전기준의 제정, 국제기준의 표준화 참여, 어린이·소방관·관련업체·시민을 대상으로 한 계몽활동

등을 해 왔다.

화재에 관한 전문가집단으로서 이러한 활동은 사회전체의 화재로 인한 손실의 예방과 방재활동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회의 활동에 다음 몇 가지 점들이 접합되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효한 리스크관리는 리스크를 가진 당사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리스크관리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나 그 효과는 장기적이며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리스크관리의 효과를 재무적인 관점에서 현금흐름분석과 기업가치, 즉 주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리스크 노출단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수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원래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설립한 기관으로서 과거 이들 손해보험사들의 방재활동협회비에 의존 운영되어 왔으나 방재관련 연구용역, 컨설팅, 시험인증 및 방재전문교육 등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자립도가 매년 증가하여 '99년에는 자체수입이 예산총액의 53.5%에 달하고 있다. 방재전문기관으로서 이러한 활동영역의 확대는 협회 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화재리스크에 대한 손실의 감소를 통한 사회에 대한 기여도 높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영역의 확대와 증대는 단순한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방재와 연관된 포괄적인 경영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보다 사업확대가 용이하고 사회의 리스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증대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방재담당자, 리스크관리자, 보험관리자, 안전관리자, 재무관리자 등 모든 관련 관리자들과 대화하고 화재방재활동의 유효성을 세일즈할 수 있는 협회 자체의 리스크관리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 정보제공 기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수

준의 향상에는 교육과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불조심 어린이마당, 소방관 초등학교, 기업에 대한 방재기술 현장교육, 화재예방계몽활동 등은 매우 바람직한 협회의 활동이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초등학교 정규교육내용의 편찬, 일반 시민을 위한 교육, 기업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교육, 화재전문가를 위한 교육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지속적인 교재와 내용의 개발, 특히 인터넷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즉, 초보적인 개념에서부터 아주 전문적인 지식에 관한 것까지를 포함하는 정보의 제공이 사회 전반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육에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은 방재에 관한 것뿐 아니라 리스크관리의 개념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에는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같은 학술단체와의 제휴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현재 협회는 미국의 USFA, NFPA, ISO 등이 수행하는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화재에 관한 다른 전문가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데 연유한다고 판단된다. 화보험회의 경쟁력의 원천은 첨단 방재기술 수준의 확보에 있다.

협회의 활동영역 확대와 역할증대는 세계적인 기술수준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우선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 재원증대의 한 방안으로 손해보험사 외에 화재 리스크관리의 실수요자인 개인들과 기업들을 협회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NFPA는 67,000명의 개인회원과 80개의 기관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협회회원의 확대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제고뿐 아니라 손해보험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화보험회가 우리나라 리스크관리 선진화의 견인차가 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 화보험회는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기의 위상을 잘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